

44

흥겨운 축제, 대구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담다



【4장을 열며】

해마다 대구에선 많은 축제가 열린다. 대구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을 주제로 한 축제들은 지역의 특성과 연관되어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아울러 경북의 주요 축제들도 알아보자.

1. 대구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축제
2. 자연을 주제로 하는 축제 & 저마다 개성과 즐거움이 있는 축제
3.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상북도의 축제

1

대구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축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조선시대부터 경상도의 중심도시였던 대구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축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일찍부터 발전해 온 예술의 도시 대구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음악, 연극, 사진 등의 문화예술 이벤트들도 함께 만나 본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의상으로 대구를 물들이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터 대구는 지금 축제 중!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매년 5월 대구시 중구 남성로에 있는 대구 약령시 거리에서 열리는 축제다. 조선 중기에 생긴 대구 약령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약재시장이다. 이 축제의 목적은 대구 약령시의 긴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도 발전을 이어 나가는 데 있다. 축제 현장에서는 한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경상감영 풍속 재현 행사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경상감영공원을 찾으면 조선시대 경상감영에서 행해지는 전통의식 재현 행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행사는 오후 2시 중이나 북을 두드려 시간을 알려 주는 군사들의 행진으로 시작되는





매주 토요일 오후 경상감영에서 볼 수 있는 전통의식 재현 행사

데, 조선시대에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도심의 중심거리에 설치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고 한다. 이어서 경상감영 문을 지키는 수문장 교대의식, 취타대 공연, 전통무예 시범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조선시대 전통복식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 외에 다양한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대구를 다른 도시와 구분지어 주는, 대구만의 도시 브랜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구시의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에 잘 나타난다. 영어 표현 'Colorful'의 뜻 그대로 대구는 '알록달록하고, 다채롭고, 색채가 풍부한 도시'라는 것이다. 즉 대구가 다양성, 활력, 열정, 에너지를 가진 도시라는 말이 된다.

이 슬로건에 어울리는 축제가 매년 5월 대구 도심에서 열리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다. 축제의 가장 흥겨운 볼거리는 '컬러풀 퍼레이드'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거리 행진 프로그램이다. 경연으로 진행되는 이 퍼레이드가 펼쳐질 때면 화려한 의상과 분장을 한 형형색색의 물결이 도시를 수놓는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 퍼레이드 외에도 컬러풀 거리예술제, 컬러풀 장터도 축제의 흥미를 더하는 요소들이다.

동성로축제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인 동성로에선 매년 5월 동성로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펼쳐지는데, 1990년에 시작되어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해마다 열리는 축제에는 그때그때 슬로건을 정하게 되는데, 2019년의 경우에는 '대구 살아있네! 동성로 살아있네!'였다.

2019년 동성로 거리에선 이 외에도 대구를 대표하는 게임 축제인 대구글로벌게임문화축제(e-Fun 2019),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겸한 성탄 기념 축제도 열렸다.



동성로는 언제 생겼을까?

1907년 대구 시내를 둘러싼 대구읍성 철거가 완료되고, 읍성이 있던 자리에 동서남북으로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 동성로는 이때 생긴 길로, '대구읍성 동쪽에 난 길'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다. 도로의 길이는 약 920m로 대구역에서 옛 중앙파출소가 있는 곳까지 뻗어 있다. 동성로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대구백화점인데 1969년에 들어선 건물이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대구백화점 앞은 대구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축제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도시 곳곳에서 즐기는
예술의 멋, 문화의 맛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뮤지컬은 노래, 무용(춤), 드라마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이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 장르로서, 대구에선 2006년부터 매년 가을,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축제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DIMF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국제 뮤지컬 축제로, 해외 초청 작품, 국내 창작 뮤지컬 등 20편이 넘는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외에 개막 축하 공연, 폐막 행사(DIMF 어워즈),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주 공연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외에 두류공원의 코오롱야외음악당, 동성로, 수성못에서도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소개된 후 대구는 한국의 서양음악 발전에 중요한 도시 구실을 해 왔다. 그러한 도시답게 대구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오페라단이 있다는 것, 게다가 2003년 국내 최초의 오페라 전용 극장이 들어섰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대구라는 도시가 지닌 서구 음악의 전통과 훌륭한 공연 인프라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여는 탄탄한 기반이다. 축제 기간 중에는 오페라하우스 공연 외에도 소극장과 야외에서 열리는 미니 오페라 콘서트, 실내악 공연과 수상음악회 등이 관객의 귀를 즐겁게 한다.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봉산미술제

대구사진비엔날레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전람회를 말하며, 대부분 미술 전람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특이하게도 사진 분야의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사진예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도시답게 현재도 여전히 그 예술적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대구사진비엔날레는 달서구에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데, 2018년의 비엔날레에는 유료 관람객 1만 5000여 명을 포함해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봉산미술제

대구에는 전국의 미술가들에게 잘 알려진 미술 거리가 있다. 대구 도심에서 가까운 봉산문화거리이다. 이곳에는 현재 20여 개의 화랑을 비롯해 미술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1993년부터 매년 10월 개최되고 있는 봉산미술제 축제 기간 중 봉산문화거리 내 갤러리에서 일제히 전시회가 열리고, 봉산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미술품 경매 이벤트도 선을 보인다.

꼭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봉산문화거리는 한번 찾아볼 만한 공간이다. 봉산문화회관과 인근 갤러리에서 연중 내내 열리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일상의 여유와 문화의 향기를 음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대구를 빼고 한국의 현대예술을 논할 수 없다

서양 현대예술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은 20세기 초였다. 이 때 대구에는 서울 못지않은 속도로 문학, 미술, 음악을 비롯한 서양 예술이 전파되었다. 음악 분야를 예로 들면, 1910년경부터 대구의 학교에선 서양 악기를 연주하는 관악대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서양 악기인 피아노가 서양 선교사에 의해 처음 들어온 것은 1901년. 이 피아노는 1907년 개교한 신명여자학교에 기증되었고, 이때부터 대구에는 피아노를 이용한 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대구는 각 분야에서 많은 유명 예술가를 배출해 왔다.

2

자연을 주제로 하는 축제 & 저마다 개성과 즐거움이 있는 축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축제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또 개성이 있는 축제, 상상력이 돋보이는 축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벚꽃터널이 장관을 이룬 팔공산벚꽃축제

꽃향기, 바람소리 가득한 자연으로의 초대

팔공산벚꽃축제

매년 4월 팔공산에선 벚꽃의 교향악이 울려 퍼진다. 2019년 11회를 맞은 팔공산벚꽃축제는 팔공산 동화지구 분수대광장을 중심으로 열린다. 가장 즐거운 볼거리는 축제장~수태골 주차장 구간에 펼쳐진 벚꽃터널이다. 축제에는 벚꽃길 시민걷기대회 행사를 비롯해 야외 공연, 먹거리 부스, 폴리마켓,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대구 지식플러스

앞산빨래터축제

대구시 남구의 대표 축제로 매년 봄에 열리는 이 축제는 앞산빨래터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빨래터공원이라는 이름은 앞산의 맑은 물이 모인 곳을 마을 공동 빨래터가 있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앞산빨래터공원에는 해넘이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비슬산참꽃문화제

비슬산은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구의 명승지이다. 이곳에선 매년 4월 비슬산참꽃문화제가 열린다. 비슬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약 30만 평의 참꽃 군락지가 있는데, 참꽃문화제는 이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또 즐겁게 감상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이다.

축제는 비슬산의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시작한다. 축제에서 가장 즐거운 볼거리는 해발 1,000m 지대에 있는 참꽃 군락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외에 참꽃생활예술페스티벌, 참꽃가요제 등의 행사가 열린다.

안심창조밸리연꽃축제

대구시 동구에 있는 안심 지역에 광활하게 펼쳐진 연근단지(연꽃)가 있다. 연꽃의 뿌리줄기인 연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반야월 연근(꽃)단지라고도 불리



매년 4월 비슬산참꽃문화제 철이면 온 산이 붉은빛으로 물든다.



는 이곳에선 해마다 연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8월에 연꽃축제가 열린다. 연근단지 중심지로 연 생태관, 연 터널 갤러리, 점새늪 산책로, 금강역 레일 카페가 조성되어 있다. 연꽃축제는 반야월 연근(꽃)단지를 홍보하며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원하여 영천과 경산 지역을 거쳐 대구로 흘러드는 길이 118.4km의 금호강은 바람에 흔들리는 강변 갈대밭에서 '비파' 소리가 나고 강물은 '호수'처럼 맑고 잔잔하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대구시 북구가 주최하는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는 매년 9~10월경 금호강에 놓인 산격대교 일대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몸이 캔버스가 되는 아름다운 축제, 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어? 이런 축제도 있네!
대구의 이색 축제들

소원 풍등 날리기

2019년 4월 27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운동장에선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3000여 개의 풍등이 두둥실 하늘로 올라갔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달구벌 관등 놀이의 일부인 '소원 풍등 날리기'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소망이 담긴 풍등을 하늘에 날리는 행사이다.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

대구의 여름은 덥기로 유명하다. 이런 환경적 요인을 긍정적인 축제로 승화한 것이 바로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이다. 호러(공포)라는 장르를 이용해 더위도 식힐 겸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색 축제이다. 매년 8월 대구스타디움 시민광장, 대구 시내 소극장 등에서 호러를 주제로 한 연극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은 몸을 캔버스로 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대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바디페인팅을 주제로 한 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시이다. 바디페인팅대회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의상과 장식품의 조화로 화려함을 뽐내는 환타지 메이크업 어워드 행사도 볼 만하고, 네일아트 등 뷰티 관련 중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한 강의도 진행된다. 매년 8월에 열리는 축제이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대구치맥페스티벌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섬유산업도시 대구, 패션도시 대구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매년 가을에 열리는 축제이다. 2019년 행사는 수성못 옆 상화동산에서 열렸는데 많은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패션아트 전시회, 설치미술 전시 등의 행사가 열렸다.

수성못페스티벌 & 수성빛예술제

대구시 수성구의 대표 축제로 매년 가을 수성못에서 호수와 물을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이다. 2019년 수성못과 두산오거리 일원에서는 제1회 수성빛예술제가 열렸다. 또 음식거리로 유명한 수성구 들안길에서는 가을에 들안길푸드페스티벌이 열린다.

대구치맥페스티벌

매년 7월 두류공원에선 치킨과 맥주를 주제로 하는 치맥페스티벌이 열린다. 대구는 한국에 널리 알려진 유명 치킨 회사가 여러 개 생겨난 도시인데, 이 전통에 부합하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은 1회 행사 때부터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대구에선 또 이런 축제들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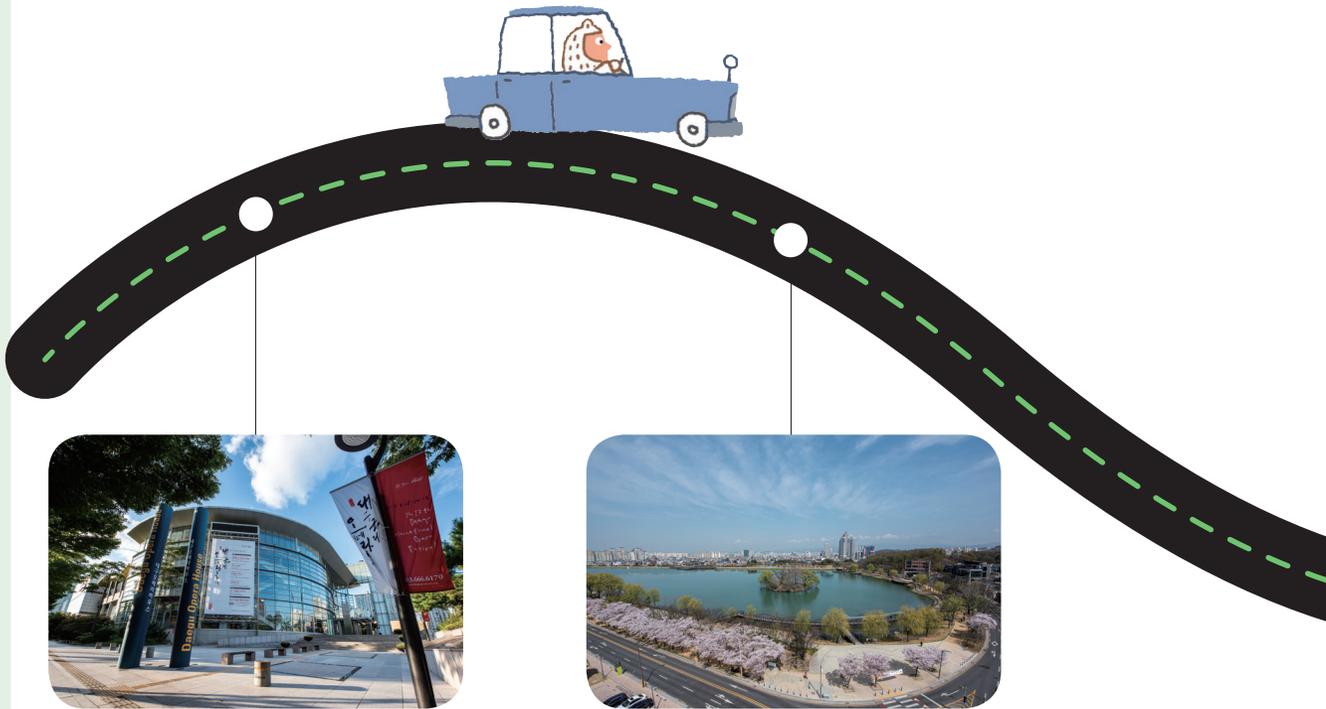
대봉교 아래 신천둔치에서는 가을에 대구 출신의 가수인 김광석을 추모하는 '김광석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대회'가, 대구 최대 시장인 서문시장에서는 매년 가을 서문시장 축제가 열린다.



교실 밖 대구 역사체험

축제가 열리는 대구의 명소를 찾아서!

대구 주요 축제가 열리는 장소들 중에는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서 보고 경험할 만한 명소들이 많다. 체험학습 장소로도 좋은 다섯 군데를 탐방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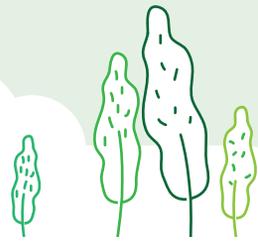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굳이 공연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구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곳은 아트 샵(Art Shop), 주요 아리아 및 유명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룸(Audio Room),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제작한 역대 오페라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오페라 아카이브(Opera Archive)와 같은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수성못

수성못페스티벌이 열리는 대구 대표 연못.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 못 근처의 수성들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인공 저수지였다. 또 수성못 언저리에는 수성들판을 배경으로 한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쓴 이상화 시인 기념 조형물이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1990년 문을 연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랫동안 대구의 문화예술 1번지 역할을 해 온 곳으로 연중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자리한 두류공원에는 단일 야외 공연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코오롱 야외음악당도 있다. 음악당 근처 두류공원 산기슭에는 대구 출신 예술가들의 인물과 작품을 조각으로 표현해 놓은 인물동산이 있다.

팔공산 올레길

팔공산에선 봄에 벚꽃축제, 가을에는 단풍축제가 열린다. 천천히 걸어가며 팔공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려면 팔공산에 조성된 올레길을 걸어 보는 것이 좋다. 8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는 올레길을 매주 1개 코스씩 8주에 걸쳐 걷는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코스 곳곳에 문화재가 많은데, 올레길 6코스 '단산지 가는 길'에는 삼국시대 고분인 불로동 고분군이 있다.

봉산문화회관

언제 가든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봉산문화거리의 중심 건물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 건물 1층에는 공연장, 2층에 공연장과 전시실, 3층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그리고 4층에 강의실과 대구시 중구문화원이 자리하고 있다. 모든 공연장, 전시관이 그리하듯이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계에서 이름난 축제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아보고,
대구 지역의 축제를 보다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축제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축제가 있는 반면, 어떤 축제는 세계적인 엄청난 관심 속에 치러지기도 합니다. 이름난 축제들은 그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엄청난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세계 유명 축제들이 지닌 특징을 알아둔다면, 우리 지역 축제를 세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축제	성공 요인
리우 카니발(브라질) 베니스 페스티벌(이탈리아)	도시 전체에서 신기한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 색다른 체험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을 통한 축제 규모 성장.
토마토 축제(스페인) 망통 레몬축제(프랑스) 뮌헨 맥주축제(독일)	민속놀이와 특산물을 테마로 축제 구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 우수한 특산물을 잘 연계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 기획.
에딘버러 군악대축제(스코틀랜드) 아비뇽 페스티벌(프랑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오스트리아)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에서 수준 높고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콘텐츠 선보임. 인근 지역들과 연계하여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대부분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하지 못합니다. 주로 연예인 초청 공연으로 진행되곤 하는 탓에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어서일 거예요. 반면에 대구·경북에는 대구국제뮤지컬축제(DIMF)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청도의 코미디축제 등 유명 축제들이 아주 많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대구의 동성로, 봉산육거리, 김광석거리 등에서 펼쳐지는 거리 축제들과 연계한다면 훨씬 흥미로워지겠죠? 국내외 방문객들을 끌어모을 아주 ‘핫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MEMO



3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상북도의 축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경상북도는 고대부터 한반도 역사의 중요한 무대였다. 오늘날 경상북도에선 그 역사와 전통을 잇는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자연과 특산품을 주제로 한 유명 축제도 많다. 다채로운 경북 축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가야시대로 타임슬립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축제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고령군은 서기 42년부터 520년간 대가야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200여 기의 지산동 고분군(사적 79호)과 암각화, 가야 토기, 산성 등 많은 문화재가 즐비하다. 그런 곳이니 만큼 고령군에서 대가야체험축제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 경북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이벤트의 하나가 된 이 축제는 2019년에도 대가야 병사 체험, 토기 체험, 생활 체험, 가야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축제 기간이 아니라도 고령읍에 있는 대가야박물관은 한 번쯤 찾아볼 만한 곳이다. 대가야 유물을 집대성한 전시관에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충실하게 체험학습할 수 있다.

경주 신라문화제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 가운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행사의 하나가 바로 신라문화제이다. 축제의 중심 무대는 경주 시내에 있는 황성공원으로 2019년까지 총 47회가 열렸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시가지 퍼레이드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신라인 분장을 하고 거리를 행진한다. 이 외에도 경주에서는 경주 벚꽃축제, 경주 도자기축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같은 문화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안동민속축제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에선 약 800년 전부터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탈놀이로, 조형미가 뛰



한장군놀이가 유명한 자인단오제

어난 탈의 원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 오랜 역사와 큰 명성을 기념하여 안동에 선 1997년부터 탈춤을 주제로 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축제기간에는 2019년 48회를 맞은 안동민속축제도 함께 열린다. 안동시에는 탈춤의 역사를 기념하는 안동탈춤공원도 있다.

경산 자인단오제(한장군놀이)

단오는 조상들이 매년 음력 5월 5일을 기념하던 명절이었다. 우리나라 여러 지방에는 단오 풍속을 전승하는 축제가 열리는데 경상북도에선 경산에서 열리는 자인단오제가 유명하다.

자인단오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일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선 단오굿, 전통 춤과 농악 공연, 단오 때의 풍속인 창포로 머리감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단오를 기념하는 축제는 또 있다. 울진군 평해읍 남대천에서 열리는 단오제가 그것인데,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와 큰줄 당기기 같은 전통 민속놀이 재현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하회탈(각시)



하회탈(양반)



2019년에 개최된 풍기인삼축제와 봉화은어축제의 포스터

자연과 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

우리 고장 지식 플러스

경상북도의 기타 특산물 축제

- * 김천시의 자두포도축제
- * 문경시의 전통차사발축제
- * 봉화군의 송이축제
- * 상주시의 굿감축제
- * 성주군의 참외축제
- * 영양군의 영양고추H.O.T.페스티벌 및 산나물축제
- * 영천시의 한약밧과일축제
- * 울릉군의 오징어축제
- * 울진군의 송이축제
- * 의성군의 마늘축제
- * 청도군의 반시축제 (반시: 동글납작한 감)
- * 청송군의 사과축제
- * 칠곡군의 아카시아꽃축제
- * 포항시의 과메기축제

경상북도에는 크고 아름다운 산, 기름진 평야가 많이 있다. 또 여러 고장이 동해안을 끼고 있다. 이런 자연의 풍요로움은 다양한 특산품을 선물해 주었다. 그래서 자연과 특산품을 주제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열린다.

경상북도 봉화에서 시작되는 내성천은 봉화-영주-예천을 지나 문경에서 낙동강에 합류한다. 은빛 모래사장을 끼고 맑은 물이 흐르는 내성천은 낙동강의 아름다운 지류를 형성한다. 내성천이 흐르는 봉화군에선 자연과 생태를 두루 체험하고 은어잡이도 해 볼 수 있는 봉화은어축제를 매년 여름 열고 있다.

영주시 풍기 지역에서 나는 인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품이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영주시는 풍기인삼축제를 남원천 일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 경북의 특산품 중에는 조선시대에 왕에게 진상했다는 역사가 전해 오는 특산품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영덕의 대게이다. 오랜 유명세를 간직한 까닭에 오늘날에도 동해바다와 접한 영덕군 강구항에서는 영덕대게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

또 영덕군과 마찬가지로 동해안에 있는 울진군도 한국에서 유명한 대게 명산지이다. 이곳에서도 해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연들의 향연, 의성세계연축제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
경북의 이색 축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과 다음 해 첫날인 1월 1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경북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포항 호미곶에서 열리는 한민족해맞이축전이다. 이와 더불어 매년 여름이면 포항 형산강체육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포항국제불빛축제도 기억할 만하다.

낭만적인 기차여행 코스로 경북을 뺄뺄하면 섭섭하다. 봉화군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간이역인 분천역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산타마을축제를 열고 있다. 분천역을 중심으로 마을 일대에서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이다. 흔히 크리스마스 하면 겨울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름에도 진행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재미있다. 분천역에는 경북나드리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 중부내륙관광열차(O-train)가 정차한다.

영천시의 보현산천문대를 활용한 축제로서 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와 강연이 펼쳐지는 영천 보현산별빛축제, 푸른 하늘로 솟구치는 다양한 연을 구경할 수 있는 의성군의 의성세계연축제, 곤충을 주제로 한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경북의 이색 축제이다.